

어제 만난 년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지쳐보이고
뭔지 변한것 같기도 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했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널 모르는 곳으로...

- 참부모님께 -

참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승교성이거든요 하요. 참부모님!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참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그런 학생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참부모님을 그렇게 많이
뵈셔서 어쩌면 한번이라도 뵈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무리 처음 뵈어도
꿈이나 생방송에 뵈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이새가 자기
재복을 감사고 들었던 것과 같이 저희를 감사고 들봐주셔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도 참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하요. 비록 지금 명계에 계시지만
저는 믿고 있어요.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편지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계시는 곳까지
전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제 2016년이 지났 새로운 2017년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게 못했던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께 많이 효도를 해드려 못해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부모님께 효도를 해서 저도 착한 자녀가 될게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요

- 승교성 올림 -

2017년 1월 8일